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최근 남녀가 결혼 할 때 주고받는 예물, 예단이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상대편이 과도한 예물을 요구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후에도 신부 측에 무리한 지참금을 강요해서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결혼 전후에 양가에서 숨 막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거래'와 '흥청'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예단 전쟁'이라고 할 만하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무리이다'(婚嫁論財 夷虜之徒)라는 말이 있다. 원래 '오랑캐'는 중국민족이 주변의 미개한 민족을 폄하해서 부른 명칭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오랑캐는 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당나라의 문호 한유(韓愈)는 원인(原

인)이란 글에서 "사람은 오랑캐와 짐승의 주인이다"(人者 夷狄禽獸之主也)라고 말했다. 즉, 오랑캐는 사람이 아닌 짐승과 동급으로 분류되었다.

오랑캐에 대한 한유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랑캐가 짐승과 동급으로 인식되었던 시대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에 재물은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무리이다"라 말한 것은 재물을 논하는 자들을 사람 아닌 짐승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이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오늘날 결혼을 앞두고 '예단 전쟁'을 벌이는 자들이야말로 짐승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인가, 재물을 보고 결혼을 하

는 것인가?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한다. 이렇게 중요하고 성스러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격렬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이는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는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사회에는 이 밖에도 또 다른 짐승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무려 21명의 자녀들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열한 살의 혜진아와 아홉 살의 예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정성현, 등교하던 여덟 살의 나영이를

모든 부모들의 가슴을 적셨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들이는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을 만큼 속 깊은 아이였다. ... 돈이 없어 늘 라면만 먹었는데도 불평 한 번 없이 라면이 제일 좋다고 했다." 이런 천사 같은 아들이에게 못된 짓을 한 김점택을 여제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짐승이다. 이외에도 반인륜적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탈을 뒤집어쓰고 여제 저질 수가 ... "라고 분노한다. 그렇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탈을 뒤집어쓴 짐승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짐승들과 함께 살고 가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특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짐승들 때문에 이 땅의 부모들은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을 해치는 짐승들은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범죄를 보고 싶다면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성군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농산물 외면하는 전남 서울유통센터

전남산 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망 개척을 위해 설립된 전남도 서울 친환경유통센터가 타지 농산물을 절반 넘게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에도 타지 농산물과 수입산농산물 판매가 적었던 업체들과 허술한 계약을 맺은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1일 개장한 이 센터에서 타지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최근 시정지시를 내렸다. 전남도 소유 부지에 전남친환경농산물유통(주)가 건물을 지어 임대형 민자방식으로 참여한 이 센터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 매장에서 전남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 현장점검 결과 50~60%의 농산물이 타지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유통과 단체급식 등 활용 개척을 위해 추진한 유통사업이 결투고 있는 것이다.

업체들은 도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전남산 농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타지 생선제품 팔 수 있다'는 협약 조항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도는 협약파기 등 압박을 하고 있지만 애초 협약이 허술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협약 체결 당시 '전남산 판매' 조항을 넣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에 '전남산 판매'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속으로 추진한 탓이다.

협약서상 타지 농산물을 팔 경우에도 연 3회 이상 적발돼야 계약 파기가 가능토록 돼 있는 등 강제조항도 부실하다.

더욱이 전남직관장인 지난 2008년 전남산물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수입산과 외산품을 팔다 적발됐던 업체가 지하 1층 영입을 맡고 있는 것이다. 과오가 있는 업체에게 재차 맡기면서 규정마저 허술하게 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광역스포츠 사후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광주시가 4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어 지난 2010년 개최한 '세계광엑스포'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되거나 일부는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수십억 원에 이르러는 조명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단 한 차례 쓰인 뒤 무용지물이 되는가 하면 사후 관리를 안해 아예 파악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주변에 설치했던 경관 조명 장치는 광엑스포 이후 단 한차례도 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이 시설의 컨트롤 컴퓨터 장치가 청사 내에 보관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니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금남로와 광주천변 등 광주 곳곳에 설치돼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었던 LED 조명시설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오리무중이다. 광주시는 LED 조명 등은 엑스포재단에서 필요한 기관에 배분하고, 사용이 힘든 장치는 불용품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다. 또 엑스포 이후 재활용을 위해 광주시가 재단으로 인계받은 점도블록 5320㎡와 고압블록 2252㎡도 지금까지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야적장에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5% 수준인 점도블록 356㎡를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도블록 공사와 가로수 환단 보수 공사 등에 사용했을 뿐이다.

전체 시설물 중 주제영상관과 빛음양분수 등 일부 시설만이 문화콘텐츠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고 시가 예측과 관련이 맞지 않다고 한다. 400억 원이 들어간 광엑스포 시설물의 사후 활용과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광역시 가운데 가장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약해도 모자랄 판에 혈세 낭비나 있을 법한 일인가.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더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三國志)의 중국식 정식 명칭은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다. 명나라 때 나관중(羅貫中)이 지은 이 소설은 후한(後漢)말에서 삼국시대까지의 다양한 정치·군사적 변동을 그렸다.

유비와 조조, 관우, 장비, 제갈량, 주유, 향유, 여포 등등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등장 인물들은 후세나 독자들로 부터 각각 다양한 평판을 받는다. 가령 유비는 후덕한 군주의 표상이나 매사에 우유부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비는 용맹은 뛰어난 반면 좌충우돌이어서 리더형으로는 적당치 않다.

공정적인 평판은 대체로 관우와 제갈량에 모인다. 관우는 뛰어난 무예와 의리, 기품있는 행동으로 존경받는다. 지금도 관우는 중국인들에게 재물신(財物神)으로 추앙의 대상이다.

인물평의 압권은 아무래도 제갈량이 아닐까 싶다. 기지가 많고 책략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 그는 중국인들에게 지혜의 화신으로 일컬어진다. 비록 소

설이지만 조조 대군과의 적벽대전에서 허수아비를 앞세운 전선을 띄워 10만 개의 화살을 겨져 얻는가 하면, 바람의 방향을 바꿔 화공으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은 세인들에게 각인돼 있다.

최근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간 서로 얽히고 설키는 '신 삼국지'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한·일간, 중·일간 영토문제, 한·중간은 대북 인권활동가 김영환

씨 고문 의혹으로 갈등이 잠복해 있다. 한·일간에는 독도 문제가 원색적인 화살이 오가는 중이다.

중·일간은 다오위대 오(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상대 국민끼리 상륙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중간 인권침해 논란도 언제 커질지

모를 불새다. 지금 한·중·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 삼국지'의 형국은 매우 과격하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전투 초반 자멸적인 주인공이 기선을 잡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후 승자는 항상 냉철한 지혜의 소유자였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신 삼국지'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학생들 스스로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어갈 소지가 크며 학교에 대한 불감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범죄 현상에서도 어긋난다. 중대한 범죄로 형사입건된 사람들의 수가 기록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공개되며, 소년법 역시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반대로 형벌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은 학교가 감옥인지 법원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만든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수감률 언론에서 가리는 이유는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인권은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과부는 인권에 대한 반대말만 하고 있다. 학교폭력 해결책에 대한 길이 멀고도 길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습이 아닌가 싶다. 요즘의 우리 아이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모르고 부족함에 대해 불평하는데 익숙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는 우리 부모들의 조금 하고 현명하지 못한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안 원장과 양 선수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냉소적이고 메마른 우리들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청량제와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안 원장을 통해 표출되는 기존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긍정적인 변화의 열망과 양 선수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이 병축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순수하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철없는 생각쯤으로 치부되지 않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무엇이 평가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제 안 원장을 통해 표출되는 대중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의, 복지, 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대중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길 염원한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양 선수와 같은 가슴 뭉클한 감동시화들 쓰지 못하거나 쓸 수 없는 상당수의 사회적 소외계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오면 한다. 오늘 필자가 안 원장과 양 선수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변호사>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카스 같은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양이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카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알 것이다. 카페인은 원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다는 사실이다.

카페인은 성분은 그 특성상 거기에 의존하던 게 끊어지게 되면 불안감과, 초조감,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더 강한 욕구에 해당하는 약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커피나 콜라처럼 부모들이 경계하지 않는 만큼 청소년들이 카페인이 노출되는 통로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마구 마시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율림동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마라

위원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내용을 보면, 기재의 장기간 유지로 입시 및 졸업 후 취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제심의제도 또는 중간사제심도를 도입하는 등 위 지침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자체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권고에 불과할 뿐이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개제는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생활기록부는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

로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 학생들의 통제를 목적으로 입시를 연계하는 수단이 아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경력을 기록,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기간 따라다니게 될 징계 경력은 '낙인 효과'로 인하여 가해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기보다 도리어 스스로 변화할

하고 있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정의·복지·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기존 정치인의 그것에 비해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식 대선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그가 내놓은 책이 유력한 대선주자마저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성원과 지지를 받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어떤 대선주자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누구나 상식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안 원장 스스로 지적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그에 대한 지지는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고, 상식과 원칙, 그리고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안철수라는 상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변화의 기록제라는 점에서도 지금의 '안철수 신드롬'은 그 자체로 긍정적

NGO 칼럼



박고형준

학교폭력 해결책, 도대체 언제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추진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광주시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은 거부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

기고



김정호

최근 안철수와 양학선이라는 이름이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철수 서울 융합기술과학대학원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양학선 선수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부모 등 가족의 삶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사실 안 원장이나 양 선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껏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내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의 상식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안 원장이나 양 선수가 이처럼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대중이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안철수교수 책에 대해 기존 주장을 짜깁기한 수준의 글이라거나 사실이냐 칼럼에서 접해 온 낯익은 주장들이어서 전혀 새롭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그가 강조

청소년들 카페인 많은 에너지 음료 습관적 복용 걱정

운동효과도 높고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에너지 음료라는 게 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크게 유행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로 20~30대가 가장 큰 소비층인데 10대 청소년층에서 유망하다.

광고를 봐도 이 음료는 원기 회복에 좋고 몸을 활력을 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하니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게 많이 마시나 보면 커피처럼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나이가 있는 성인들의 운동효과가 아닌, 10대 청소년들은 공부하기 위해 잠을 쫓겠다는 생각으로 마시는 게 문제다. 잠을 쫓겠다는 생각은 그 안에 카페인이 주성분이다 보니 그걸 마시므로써 잠을 쫓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마시는 것이다.

특히 시험기간 같은 때 집중적으로 마시고, 가방에도 항상 넣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 에너지 음료 한 병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80mg 정도인데 이 정도 양이면 우리가 흔하게 사먹는 캔커피와도 비슷하고, 처방전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박